

불평등을 넘어서려는 영국 민중의 서사시

[서평] 셸리나 토드, 서영표 옮김(2016),

『민중 : 영국 노동 계급의 사회사 1910-2010』, 클 출판사, 672쪽.

이 승 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우리는 누구일까? 실존을 위장한 상투적 질문이 아니라, 2016년을 지나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 질문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치적’이며, 가장 일상적인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내가 사는 마을을 산책하는 동안 내가 자연스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세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졌다. 치솟는 전월세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마을은 어찌면 21세기 신상품 브랜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마을을 떠나 정붙일 직장이 변변히 있는 것도 아니다. 돌아갈 고향도 재개발로 어릴 적 흔적이 사라진지도 오래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조차 쓰레기통에 처박힌 타블렛 PC와 함께 버려졌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예언자나 주술사를 자처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들을 믿는 신도 무리

*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들이 없는 한 어느 누구도 미래를 먼저 경험하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말해줄 수는 없다.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중 하나는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거나, 혹은 ‘다른 우리’가 지나 온 그 시간의 흐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처한 이 역사적 순간, 최근 읽은 한 권의 책은 그 답을 위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어떤 위로는 될 것이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다른 우리가 이미 걸어온 발자국들이기 때문이다. 이 발자국들은 때로는 흩어져 있고, 때로는 지워지거나 그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여러 방향들이 교차해서 어디가 큰 방향인지 파악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느 ‘우리’이든 어려움을 겪거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 그리고 이겨낸 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방식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20세기 영국 민중들이 걸어온 발자국들을 모아 하나의 흐름으로 엮은 책이 있다. 우리가 아는 제국주의 영국이 아니라, 제국주의 패권 이후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국 민중들의 서사적 흐름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영국 역사학자 셸리나 토드의 <민중 : 영국 노동 계급의 사회사 1910-2010, The People: the rise and fall of the working class: 1910-2010>(서영표 옮김, 클 펴냄)이다.

글에서 느껴지는 촉감

저자인 셸리나 토드 자신이 서론에 언급했듯이, 이 책은 그 전 세기 거대한 흐름으로 형성되고 자신들의 문화와 공동체를 형성해온 노동계급이 영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 집단으로서 정책결정자들의 최우선 고려대상이자, 동시에 그들의 정책에 결코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성장해 가는 성장통을 하나의 서사로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독특하다. 그리고 문자로 꼭 찬 두꺼운 책이지만 마치 VR시스템을 착용하고 보듯 그 느낌은 가히 생생하다. 첫 장과 함께 이 책의 독자는 빅토리아 시대 장식들이 가득한 거실 한 구석에서 집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서 있거나 정시에 식사준비를 마쳐야 하는 하인이 된다. 어느 순간 런던대공습을 피해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 아이를 껴안은 채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었다가, 때로는 처절한 서부전선 참호 속 군인으로, 혹은 그 기간 전시동원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변한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의 배경이 되는 더람(Durham) 탄광 지역이나 그 위 도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에 아직도 도시 라인을 붉게 그리고 있는 공동임대주택 한 칸에 살면서 퇴근길 사온 누런 종이에 싸인 ‘피쉬 앤 칩스(Fish & chips)’를 미지근한 비터(Bitter)나 시큼한 사이다(우리가 마시는 사이다는 영국에서는 레모네이드이고, 영국에서 사이다는 사과로 만든 달달한 맥주인데, 가격이 싸고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높다)에 곁들여 폭 들어간 소파에 앉아 먹으면서 반세기 지속된 최장수 드라마 ‘코러네이션 거리(Coronation Street)’를 보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진다. 그러면서도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고, 낯선 마을에서 ‘노동계급’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들의 문화 위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헌신도 느껴진다. 그 공동체가 때로는 생계, 때로는 새로운 가치나 이념과의 충돌로 찾아온 위기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이야기에 독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물론 이 책에서 피커딜리 광장 주변의 화려함, 혹은 본드 가의 상류층 패션과 버킹검 궁을 둘러싼 뒤편가 위엄 있는 분위기를 찾을 수는 없다. 2차 대전 당시 가장 심각한 폭격의 대상이었던 코벤트리, 1960년대 이후 노동계급 문화를 비상시킨 리버풀, 그리고 늘 함께하는 맨체스터, 그 반대편 탄광촌인 더람과 뉴캐슬의 스모그 가득 찬 회색빛 도시가 대부분이

다. 간혹 런던 베이커 가의 정치이야기가 들릴 때는 영국 민중들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불길함이 스며든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다

<민중>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가내 하인, 1910-1939’이고, 2부는 ‘민중, 1939-1968’이며, 3부는 ‘빼앗긴 사람들, 1966-2010’이다. 1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노동’을 경험한 민중들이 ‘하인’이라는 굴레를 버리고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2부는 이 민중들이 ‘영국 민중의 전쟁’이라 불리는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파괴되고 쫓겨난 자신들의 공동체를 스스로 건설해가는 역경을 보여준다. 강력한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다. 3부는 민중들이 노동계급으로 스스로를 재무장할 수밖에 없는 주어진 현실을 그린다. 3부 마지막 장 제목 ‘계급 없는 사회’는 그 현실에 대한 역설이다.

1부는 아무런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 가내 ‘하인’의 관점에서 시작한다. ‘하인’의 기본은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여야 한다. 그들의 존재는 가급적 드러나지 않거나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가사 노동(빨래,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설거지, 육아, 정원관리, 오후 차 준비, 심지어 고용주 신발 신겨주기 등)은 정확한 시간에 그들이 일하는 저택의 고용주들 눈앞에 정확한 서비스로 나타나야 한다. 여성 하인들은 ‘전시 노동’을 경험하면서 하인으로서의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한다. ‘노동계급’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의 거대한 힘, 그리고 보다 나은 임금이 주는 적지 않은 행복을 경험한 이들은 단지 굶지 않기 위해 선택한 하인에서 새로운 주역인 노동계급으로 자기 변신을 시도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영국의 상층계급과 중간계급은 점점 강해지는 노동계급 문제만큼 비굴하고 고분고분해야 하지만 점차 거칠어지는 ‘하인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장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조차 차 마시고 밥 먹고 잠자고 뭘가에 대해 생각하고 명령하는 것 이외에 모든 일들을 타인의 노동을 통해서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없으면 생산을 못하지만, 하인이 없으면 생존을 못하는 그들이다.

영국 민중과 한국 민중, 도플 갱어?

2부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민중의 전쟁'이라 여기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계급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 복지국가와 완전고용 정책은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상의료'와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가족수당'은 영국 민중들이 더 이상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비굴한 하인의 삶을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영국 민중들은 단지 노동임금 몇 푼을 손에 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빼앗기고 잊힌 자신들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2부가 흥미로운 건 이제부터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있어서이기도 하다. 가족수당이 주어지고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녀로, 전쟁영웅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모여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공공'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마을 공동체가 자연스레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기 집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이 '의료비와 교육비 걱정 없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당시 영국 민중들에게 펼쳐졌다.

그러나 영국 민중의 유토피아가 현재 우리를 포함해 당시 모든 이들의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1951년 집권한 보수당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값싼 원자재를 사용한 고층아파트 (이는 나중에 영국 슬럼가를 형성한다)로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악화시키

고 공공임대주택을 노동계급 모두가 아닌 긴급한 필요가 있는 주민들에 한정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을 ‘자산’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 나갔다. 주택의 자산화는 임대료를 높여 민중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누구나’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민자(이들 대부분은 영국을 자신의 모국으로 믿도록 교육받아왔고, 민중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의 경우 임대료 이상의 차별과 모욕을 집을 구하려 다닐 때마다 받아야 했다.

혐오는 배제와 폐쇄로 이어진다. 공공임대주택은 점차 슬럼화되거나 마을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편하게 이용하던 마을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워졌고, 더 싼 집을 구하다보니 일터와 멀어져 출퇴근 시간이 점점 힘들어졌다. 가슴 아프게도 이 부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미 1950년대 영국 민중들은 자신들이 성취한(민중의 전쟁을 통해 얻은) 공공자산,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성을 다시 빼앗기고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 민중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일이 없다. 그들은 반격을 시작한다. 그들은 배제되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마을 공동체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활기차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국에 새로운 민중문화를 그야말로 폭발시켰다. 셀리나 토드의 글은 이 반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대거념과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진흙탕 벌판 위의 집들을 활기찬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들의 노력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도심 서민지역의 낡아빠진 주택과 집주인들의 권력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열렬히 원하고 있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공동체들은 주민들의 결심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일터까지 오랜 시간 비싸게 이동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을에 시간,

에너지나 돈을 투자할 수 없었다. 1960년 대거넘 노동자의 3분의 2는 그 지역의 공장, 상점, 사무실에 고용되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 안락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약간의 여분의 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여분의 돈은 이스트엔드에 두고 온 나이 든 부모를 찾아가고, 세간을 장만하여, 지역의 영화관과 댄스홀을 즐길 수 있기에 충분했다(<민중>, 토드, 260-261쪽).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담겨있다. 전월세 폭등으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녀야 하는 우리에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집과 일터가 마을에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과 존엄성을 위해 왜 필요한지, 공동체란 어떠한지 등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영국 민중들이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 위에 저 활발한 공동체를 세운 이야기에서 웬지 1844년 맨체스터 북부 로치데일에서 28명의 방직노동자들이 시작한 협동조합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조합’이 겹쳐지면서 공동체 부활이 결코 새로운 신화가 아니라, 이미 백 년 전 유전자에도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한편 최초 저 황무지 위에서 있었던 영국 민중들의 모습을 그리다보면, 1970년대 초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우리의 비극과 부딪히면서 어떤 복잡함과 무거움을 함께 떠오르게 한다.

위 인용문이 담긴 ‘8장 공동체들’ 다음 9장의 제목은 ‘이처럼 좋았던 적은 없다’이다. 이 얼마나 신나는 제목인가! 감히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란 말인가! 영국 민중들은 더 이상 천대받거나 혐오스럽거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소비자가 되었다. 안정된 임금과 안정된 생활은 더 많은 소비재를 구매하고 즐기고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텔레비전, 소파 3점 세

트, 냉장고, 조리기구와 즉석식품을 쉽게 구매하면서 그들의 삶은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그들 스스로 형성한 ‘민중’, ‘노동계급’ 정체성과 결합된 거대한 소비주의 이데올로기가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토드의 긴 글을 인용해 본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전히 새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면서도 전쟁의 궁핍 후에 찾아온 삶을 즐기고 싶었던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전후의 새로운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시절이었다. 잡지와 신문을 가득 채우고, 1955년부터는 영국의 두 번째 텔레비전 방송채널이자 최초의 민영 방송인 인디펜던트 텔레비전(Independent Television)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은 광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었다. 크라운 페인트(Crown Paint)는 “당신의 주택을 안락한 집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약속했다. 크로스리(Crosley) 조리기구는 “걱정 없는 부엌”을 창조할 것이라고 했다. 캠벨(Campell) 수프는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 “매우 훌륭한 솜씨를 발휘할” 기회를 주었다. 버틀린스(Butlins) 캠프장은 남편들에게 “엄마들을 위한 완벽한 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적절한 가격”에 더 나은 인생을 보장했다. 소비재는 전후 영국에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결합하는 수단이 되었다. 책임감 있는 가장, 다정한 남편, 매력적인 아내, 그리고 이타적인 어머니,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위의 책, 9장. 이처럼 좋았던 적은 없었다, 273쪽).

지금 홈쇼핑 채널을 멍하게 보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영국 민중들이 이 엄청난 소비 욕망을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야근이나 주말근무 수당이 아니라, 전당포, 외상과 할부 같은 신용거래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부채’의 짐을 지기 시작했다. 미래의 노동을 담보로 현재의 욕망을 소비하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다. 영국 민중과 우리는 도플 갱어인 것인가?

이들의 소비문화는 정치인들에게 좋은 기회였다. 비싼 가전제품에 면세정책을 펼치면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선전할 수 있었다. 소비와 부채가 클수록 민중들은 골치 덩어리인 저항하는 노동계급이기 보다는 자기 부채의 크기만큼 순종적인 개인 노동자로 파편화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부채도 수입으로 고려하고 민중들을 ‘소비자’로 지칭하면서 ‘더 큰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중요한 복지정책 중 빵 값을 줄여주는 ‘보조금 폐지’를 성공시켰다. ‘이처럼 좋았던 적은 없다’라는 문장의 주어는 결국 영국 민중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영국 민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문화’이다. 랭커스터 민중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때로는 막장 때로는 감동적이기도 한) 보여준 TV 드라마 ‘코리네이션 거리’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자 민중들의 문화는 더 이상 B급이 아니었다. 이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강력한 소비집단지자 새로운 소비세대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TV와 기업들은 이들을 주 고객으로 상정해야 했다. 그 흐름에서 폭발한 문화 권력은 바로 비틀즈(The Beatles)였다. 리버풀 출신 비틀즈는 노동계급의 영웅이자 전 세계 팝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거친 고향 친구인 실라 블랙(Cilla Black, 노년에도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TV 데이팅 쇼를 진행하면서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이 2015년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 찾아온 하객 명단만 봐도 그녀와 비틀즈가 대표하는 영국 민중문화가 영국에서 얼마나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문화는 집단의 시작은 아니지만, 한 집단을 살아있도록 하는 거대한 물결이다. 영국 민중문화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대중음악이나 소비주의를 통해서만은 아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전후 무상 중등교육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뿐만 아니라, 타 문화와 비교하고, 분석하고 비판적 성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냈다. 수많은 영국 민중

들이 지식인으로 변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대변하고 방어할 수 있었고 영국 민중들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지속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이 책의 저자 셸리나 토드 또한 그렇게 성장한 지식인이다(그녀의 어머니는 용접공 아버지를 두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신경약으로 살다가 무상교육과 노동운동의 배경 속에서 노조기금으로 옥스퍼드 성인대학교 러스킨 칼리지에 입학하였다. 둘은 이 칼리지에서 만나 결혼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 않다, ‘민중’

3부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겁다. 희노애락이 얽힌 2부 속 이야기들과 달리 여기서 민중들은 새로운 산을 힘들게 넘어가고 있다. 노동계급과 노동조합 사이 균열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고, 인종과 젠더 문제는 이 균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베이커 가와 템즈 강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 정당정치는 이 균열을 이용해서 노동계급, 영국 민중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려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게 된 시대는 마거릿 대처의 신자유주의 보수당 정부였다.

그래서 3부는 2부에 비해 단순하지만 거대하고 세다. 자신의 신자유주의 정책 이외에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는 마거릿 대처 정부의 공기업 매각, 탄광폐쇄, 노조파괴 등에 맞서 영국 민중들은 내부의 균열을 품어둔 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당시 웨필드 지역에서 패배한 철강 노동자들이 자기 균열 속에서 신음하는 처참함을 블랙 코미디로 담고 있는 영국 영화 ‘풀 몬티(Full Monty)’ 속 장면들이 떠오른다.

영국 민중들에게 1980년대는 암흑기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1995년 선택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한 줄기 빛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수당은 ‘계급 없는 사회’를 이미 선포했고, 블레어의 신노동당(New labour)은 ‘노동계급’ 혹은 ‘중간계급’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 급급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두의 평등이 강조되는 영국은 점점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토드는 1979년 영국 지니계수가 29였으나 2010년에는 36으로 증가했고, 1998년 영국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5%를 차지했지만, 2008년에는 3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 셀리나 토드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궁금증이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은 현재 자신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불평등’을 이겨내려는 민중들의 대서사가 있었던 것이다.

2014년 썼을 후기에서 저자는 ‘영국은 계급에 의해 분열된 사회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 가내 하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1910년에 비해 오히려 지금이 부의 격차가 더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50-1960년대 이뤄온 저 아름다운 공동체와 저갓거리를 지배하던 노동계급 영웅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1995년 이후 제3의 길을 선택한 신노동당 정부는 노동당 당헌 개정을 필두로 계급정치와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면서 신노동당의 당내 지도력을 유지해 나가려 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재편하기 위해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라는 새로운 담론과 정책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정부와 시장이 실패하면서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난제와 시민적 필요를 시민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풀어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영국식’ 사회혁신의 핵심은 사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해서 (신자유주의) 정부와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그 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어, 이제 시민 당사자인 우리가 맡아서 뒤처리 할게’라는 독백을 시민들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혁신 근간에는 정부가 통제하고 시민이 책임지는 역학이 숨어서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속에서 ‘정

치'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폴뿌리 정치가 핵심이었던 1960년대 영국 마을공동체와 비교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책을 덮을 땐 어떤 디스토피아적 우울함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는 무엇인가를 느낀다. 차별, 혐오,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나가는 영국 민중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무엇'은 이제 책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